

연구비 부정수령... 실기 부실... 한국해양대 지적사항 '49건'

교육부, 기관경고·고발 조치 예정
감사서 산단·연구비 7건 등 적발
대학, 부정수령 알고도 조치 없어



한국해양대 정문

/한국해양대 홈페이지

한국해양대 소속 직원이 연구비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연구단 운영비를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가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수주한 대학이 해당 사업비로 특정 교수에게 무단으로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 진행된 한국해양대 종합감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단·연구비 7건, 조직·인사 14건, 입시·학사 11건, 예산·회계 10건, 시설·재산 7건 등 총 49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한국해양대 소속 직원 A씨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법인카드로 201만원 상당

상품을 구매하는 등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63건, 총 7956만8454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대학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일부 묵인했다.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은 2018년 학내 정기감사를 통해 법인카드로 1445만7138원을 부당하게 사용했음을 확인하고도 연구책임자에게는 주의 조치만 내렸다. 해당 직원은 고발 조치 없이 해임됐다.

A씨는 사업단 운영비도 편취했다. A씨는 운영비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3회에 걸쳐 운영비 8116만7932원을 사적 유용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한국해양대는 사용을 확인하고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사업단 운영비

사적 사용액은 회수를 요구했다.

교수 B씨는 이미 끝난 연구로 연구비를 부당 신청해 8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한국해양대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로 직원들에게 별도 평가없이 인센티브 1500만원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LINC+ 육성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도 정하지 않고 사업단 교수들에게도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2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평가등급은 일반적으로 S, A, B등급으로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8학년도 상반기에는 17명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S와 A등급에 각각 8명을 선정하고 B등급은 1명에 불과했다.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의 흠결도 있었다. 한국해양대는 2019년 입시에서 제

자리 멀리뛰기 등 4개 종목의 실기 고사 평가를 내부인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 2019~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에 따르면, 예체능 실기 고사 평가위원은 외부 평가위원 비율이 3분의1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교수가 지도제자 학위논문의 저자표기를 부당하게 한 점도 발각됐다. C 교수 등 4명의 교수는 지도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논문을 논문집에 게재하면서 본인을 제1저자로 표기하고, 해당 논문을 업적평가에 활용했다.

이밖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 6건의 공사를 준공 처리하면서 공사금액에 계상된 환경보전비 및 안전관리비 중 업체가 사용 증빙으로 제출한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을 조회하지 않아 1092만5000원 상당을 감액하지 못한 사실도 파악됐다. 교육부는 관계자 4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별도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증설... 급수 안정성 UP

용량 72만서 95만으로 증가
오존소독·숯 여과 공정 추가



지난 11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시공사 관계자들이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아리수를 마시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증설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하루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은 종전 72만t에서 95만t으로 23만t 늘어나게 된다.

고도정수처리는 기존 정수처리 과정에 오존소독과 입상활성탄(숯) 여과 공정을 추가한 것으로, 수돗물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시설 증설로 시는 물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도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공급지역인 강북·노원·성북·은평 등

10개 자치구, 112개 동에 고도 정수처리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는 폭염, 가뭄, 녹조 등 각종 기후환경 변화에도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며 "철저한 수질 및 공정 관리로 시민들이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동국대, 108배 기부 릴레이로 24억 모금

5개월 간 약 1900명 기부

동국대학교가 '108배 기부 릴레이' 캠페인으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5월까지 5개월 간 약 1900명에게 24억원을 모금했다.

12일 동국대에 따르면 '108배 기부 릴레이'는 108배로 평온한 심신을 이루고, 기부로 보시행을 실천하며 권선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취지로 마련됐다. 학교법인 건학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제2건학을 위한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기부 방법은 108배 기부 릴레이 참가를 원하는 사람이 108배와 기부를 실천한 후 3명을 지목해 기부를 이어가는 릴레이 방식이다. 첫 주자로 윤성이 총장이 기부에 참여했고 육바라밀의 실천을 의미하는 다음 6주자를 지목했다. 이후 현재까지 1900여명이 참여해 기부금 24억원이 모금됐다.



동국대 윤성이 총장이 108배 기부 릴레이 캠페인 회향식에서 회향사를 발표하고 있다. /동국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부금 전액은 동국대 재학생 장학금으로 활용된다.

캠페인 마감을 앞두고 11일 오전 11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에서 108배 기부 릴레이 회향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동국대 이사장 성우성, 윤성이 동국대 총장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넓은 집' 찾아 서울 떠나 경기도 이사간다

서울연구원, 인구 전·출입 분석

서울시민들이 품질 좋은 새 집에서 살기 위해 경기도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통계청의 2020년 국내 인구통계 자료와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 서울 인구 전·출입 패턴과 요인' 분석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서울 시민들은 경기 하남, 화성, 김포, 시흥, 남양주 등 대규모 도시개발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짙었다.

연구진은 "서울 인구 전출을 유발한 주요 원인은 양질의 주택 수요와 맞물린 수도권 주택지 개발, 신도시 건설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 12만4870명은 주택, 가족의 사유로 순전출을 했다. 최근 5년간 서울

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출 후 자가(30.1%→46.2%) 및 아파트거주(42.6%→66.8%)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주택비용이 감소되는 등 주거편의가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민들은 경기와 인천으로 전출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로 주택면적(31.4%)을 꼽았다.

실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이들 중 주택 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46%에 달했다. 반면, 경기에서 서울로 전입했을 때 주택 규모가 커졌다고 답한 비율은 28.46%에 그쳤다.

연구진은 "인구 경쟁력 손실이나 교통 수요 유발을 감안하면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경희사이버대

호스피스 전문가 특강 진행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전공은 오는 28일 총장 명의 수료증 필수 교육 '호스피스 전문가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1부 최지은 강사(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교육이사)의 호스피스 사회복지 실천과 자원봉사, 2부 김민정 교수(경희사이버대 호스피스와사회복지교수)의 호스피스 사회복지 최신 동향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진행한다. 특히 호스피스 관련 기관에서의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활동 영역을 소개하며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호스피스 전문가수료증 취득을 원하는 재학생은 오는 5월 23일까지 사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등록 가능하다.

/신하은 기자

서울시, '2022 여름철 종합대책' 시행

무더위쉼터 3400곳 운영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2 여름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분야에서 시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검사와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심 일반의료체계로 단계적 복구를 추진한다. 병상 운영을 중증병상 중심으로 조정하고, 신종변이 확산 등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 체계를 구축한다.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등에서 무더위쉼터(3400곳)를 운영한다. 재가 어르신 돌봄 서비스, 노숙인

밀집지역 '혹서기응급구호반', '폭방촌 특별대책반' 가동으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강수 감지 자동 전파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지성 돌발강수에 실시간 대응한다. 예비특보 단계부터 '하천 고립사고 예방시설'을 즉시 가동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여름철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대책도 실시한다. 거리두기 해제로 이용객이 증가한 실내체육관, 복지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과 공사장, 교량·터널 등 총 1001개의 시설을 점검한다.

/김현정 기자